

W_F_702

꿩과 두꺼비

2019년 7월 16일, 서귀포시 천지동 천지동노인회관, 류진옥 조사.

김기정(여, 1933년생, 서귀포시 천지동)

- 제주시 출생으로 어릴 적 일본에서 살다 돌아와 22세에 결혼한 후 현재까지 천지동에서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장꿩이 약 묻은 콩을 먹고 죽은 다음 암꿩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두꺼비를 만났다. 두꺼비가 공부를 많이 하여 배가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좋아서 함께 살았다.

[제보자] 꿩이 두 부처가 사는디 훈 번은 수꿩이 어디 간 보난. 콩 훈 방울이 떨어졌더레. 콩 훈 방울이 떨어지난

“아이고 이거, 난디 난 놈 쪽복이냐, 집이 든 년 신복이냐.”

허멍 줄어 먹으난, 오꽃 약칠현 거 죽어불언. 꿩이 장꿩이.

죽어부난 암꿩은 뎅기다네 장꿩 죽어부난 혈 수 엇이 못 사난 배 고풀디 나룩밧
데 나룩 줄어 먹으러 갓단 벌거지현티 걸려네 나룩 벌거지가

“나하고 골이 살겠?”

경허난, 난 그런 벌거지랑 안 산덴, 안 산덴 헨 이젠, 이디 저디 암꿩은 뎅기
다네 어디 막 물 길어나네 물 길어단 이제 물 먹없이난 두테비가 나오나네

“꿩 아주마시, 꿩 아주마시 나영 살기 어떠해요?”

“어떻 해서 손은 그렇게 벌어졌어요?”

“너무 부끄러워부니까 손이 이렇게 벌어졌어요.”

“배는 무사 게 불없이니?”

허난

“공부를 너무 많이 헤 부난, 배운 것이 많아부난 배가 이렇게 불었어요.”

경허난, 그것이 좋아네, 그 꿩허고 두부처 살았던.

[조사자] 꿩하고 두테비하고?

[제보자] 응. 우리 할머니 옛말 골아주세요 허면 그 말 옛말이라고 골아주셔.

[조사자] 맨 처음에 아까 그 수꿩 먹을 때 뭐라 하신 거?

[제보자] 이거는 수꿩이 나가 운이 좋아서 나 복인가, 집이 든 예펜이 운이 좋아서 예펜
복인가, 게서 좋아서 그 콩을 줄어 먹었다 죽었다, 약한 콩이라.

- 핵심어: 부처, 콩, 벌거지(벌레), 두테비(두꺼비), 수꿩, 암꿩